

시간 사용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 미국의 노동과 여가 시간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중심으로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시간만큼 개인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도 찾아보기 힘들다. Backer (1965)도 주장했듯이, 시간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필수 자원이다. 경제학이 희소한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시간 사용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야 하지만, 노동경제학은 오랫동안 시장노동에 할애 되는 시간에 배타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노동’은 비효율을 유발하고 금전적 보상은 비효율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뭉뚱그려 여가라 불렀지만, 거기에는 수면, 가사활동,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활동, 개인의 취미와 자유 시간, 친교와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과 시민·국민으로서의 의무활동 등,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복지,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함의를 갖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정의하던 방식의 노동 개념을 넘어서서 금전적인 이득을 유발하지 않아도 자신이나 타인의 소비를 위해 행하는 활동, 즉 식사 준비, 빨래, 아이 돌보기, 텃밭가꾸기, 자원봉사활동 등도 노동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간사용조사 자료는 이러한 노동·여가 개념을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개인이 하루 동안 어떠한 행동에 시간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여 전통적인 통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경제활동에 관한 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널리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Juster and Stafford, 1991). 이 글에서는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노동경제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노동과 여가 시간에 관한 역사적 경향과 불평등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통해 드러난, 노동과 여가의 범주화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에 대해 소개한다.

최근 미국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¹⁾을 ‘순수한’ 여가와 분리해 내어 총 노동과 여가 시간의 역사적 변화와 여가 소비의 집단 간 불평등의 추이를 논의한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자들 간에 노동과 여가의 범위와 측정을 두고 약간의 차이와 논쟁이 있어 노동과 여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Ramey and Francis(2006)는 지난 20세기에 미국에서 여가 시간이 증가했는가를 질문하면서 노동과 여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경향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측정치, 즉 시장노동 시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여가라고 정의하는 고전적인 접근에서라면, 지난 100년 동안 시장노동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가 시간은 연간 550시간 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공부, 통근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뺀 순수 여가 시간을 계산하는 대안적인 측정치로, 오늘날의 여가 시간은 대략 1900년 때 수준과 마찬가지로 증가를 보여주었다. 여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노동 시간은 감소했지만 감소한 시장노동 시간의 70% 정도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학교공부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가정 내 생산(home production)에 투입된 평균 시간이 20세기 초보다 약간 많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런데 이들은 여가와 여가가 아닌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행위를 즐겁게 했는가 아닌가(enjoyment)라는 주관적 지표에 준거하고 있어, 여가를 정신적 만족과 같은 주관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기대고 있다. 즉 시간 사용에 있어 행동별 만족도를 연구한 Robinson and Godbey(1997)의 연구에 기대어, 돌봄노동 가운데서도 아이와 이야기하기, 놀아주기,

1) 이 글에서 필자는 가사노동은 밥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지칭하고, 돌봄노동은 아이나 성인에 대한 신체적·교육적 돌보는 행위를 지칭하여 사용한다.

책임기 등은 상대적으로 즐거운 행위로 판단하여 여가로 분류하였고, 신체적 돌봄, 공부 도와주기, 다른 성인의 돌봄, 수업 듣기, 통근 시간은 비여가로 분류하였다.

Aguiar and Hurst(2007) 역시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노동과 여가에 쓴 시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했는데, Ramey and Francis의 연구와 여가의 기준과 결론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Ramey and Francis가 20세기 후반부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시간사용조사를 사용한 데 반해, Aguiar and Hurst는 1960년대 이후에 1965, 1975, 1985, 1993, 2003년에 조사된 시간사용조사를 종합해서 자료화한 American Heritage Time Use Survey(AHTUS)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시장노동, 비시장노동(non-market work)에 투입된 시간, 인적자본 형성에 투입한 시간, 건강관리에 할애한 시간을 뺀 나머지를 여가로 정의하였다. 아동돌봄노동은 가사노동과 여가의 중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변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1965년과 2003년 사이 미국에서 진행된 출산, 가족 구조, 교육에 있어서 인구학적 변화를 통제하고 난 뒤에도 시장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여가 시간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여가 시간은 시장노동 시간의 감소로 일주일에 6~9시간 증가했고, 여성의 여가 시간은 시장노동 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절약형 기술혁신에 힘입어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여 대략 4~8시간 증가했다. 그 결과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남녀가 비슷하게 약 8시간 정도 감소했다. 여가 시간의 증가는 특히 1985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며 1985년 이후에 남성의 여가 시간은 대략 변하지 않았고 여성의 여가 시간은 감소했다. 또한 집단간 여가 시간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는데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두드러진 여가 시간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지난 40년간 미국의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의 거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은 주당 7.3시간 여가 시간의 증가를 경험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의 여가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1985년 이후에 학력별 여가 시간의 격차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 시기 저학력 남성의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가 이러한 격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블라인더-오하카 분해를 통해 고용률의 차이는 여가 시간 불평등의 증가를 절반 정도만 설명함을 보여주었다(Aguiar and Hurst, 2007; Aguiar and Hurst, 2008).

이에 대해 Ramey는 Aguiar and Hurst가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된 시간사용조사들 간에 행동 분류를 범주화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선 시기의 시간사용조사에 대해서는

근무 중의 식사와 휴식 시간을 시장노동 시간에 포함한 반면 2003년도 시간사용조사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식사만 시장노동 시간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노동 시간 감소라는 부정확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로 분류되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여가로 분류했다고 비판하며, Aguiar and Hurst가 돌봄노동 시간을 여가로 정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guiar and Hurst는 애초에 돌봄노동의 성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했다고 재반박하며, Ramey가 여가와 비여가의 범주화를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enjoyment)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동 돌봄노동의 일부는 일반적인 가사노동보다 즐거운 행위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 Ramey의 방식대로라면 여가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부모의 돌봄과 완전대체제는 아닐지언정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여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Ramey는 오류를 교정하여 여가 시간의 역사적 경향을 추정하면 남성의 경우는 14시간, 여성의 경우는 3~5시간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추정치가 과다 추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류를 수정하고 나서도 여가의 학력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결론이었다는 데 동의했다(Ramey, 2007; Aguiar and Hurst, 2008).

이들 간의 논쟁은 노동과 여가 시간에 관련한 연구에서 더 깊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함하여 노동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과 여가를 정의하는 문제에 이견의 여지가 많은 듯하다. 앞에 소개된 논쟁은 과연 행위에 수반되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만족도에 근거하여 여가를 정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따르면 특히 아이와 놀아주기 같은 돌봄노동은 노동 과정에서 내적인 정신적 만족과 효용이 발생하므로 노동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일상적인 밥짓기, 빨래와 같은 가사노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 쉽게 노동이라 정의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노동도 많은 경우 즐거움과 보람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기준은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효용/비효용의 기준을 넘어서서 노동을 정의하는 대안적 기준으로, Margaret Reid는 제3자 기준(a third-person criterion)을 제시했다. 제3자 기준에 의하면 어떤 행위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시켜서 발생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으면 노동이다. 이 제3자 기준에 의하면 시장노동은 당연히 노동이고, 아이에게 미술관 견학을 시키는 일

도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 가게 할 수 있고 아이가 그 서비스의 수혜자이므로 노동이다(Reid, 1934). 이러한 기준은 비시장노동의 생산적 가치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보인 시간사용조사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 사용에 대한 정신적 만족과 즐거움이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 부족이나 바쁘다고 느끼는 정도(time-stress)에 관해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들은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Phipps, Burton et al., 2001), 같은 양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은 저소득자들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 호주, 독일, 미국과 한국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음을 보여준다(Hamemesh and Lee, 2007). 시간 사용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주관적인 경험을 결합하여 국가시간회계(National Time Accounting)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시간 사용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 경험의 질적인 측면도 삶의 질의 중요한 척도임을 강조하고 있다(Krueger, Kahneman et al., 2008).

둘째, 앞의 노동/여가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돌봄노동은 노동과 여가 사이에서 분석적으로 모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임금이 부모의 아동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그 모호함을 벗겨내려는 시도이다. 우선 Kimmel and Connelly(2007)는 아동돌봄노동이 다른 종류의 가사노동이나 여가와 함께 묶을 수 없는 것임을 미국의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엄마의 임금 증가는 여가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아동돌봄노동 시간은 증가시킨다. 이는 아동돌봄노동에 있어서는 임금의 소득효과가 지배적인 반면 가사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대체효과가 지배적임을 함축한다. Guryan et al. (2008)도 미국의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기초로, 시장노동 시간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부모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보다 일주일에 대략 4.5시간을 더 자녀양육에 할애함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고등교육과 고소득을 받은 부모의 시간의 기회비용이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흥미롭다. 또한 대조적으로 가사노동과 여가 시간은 교육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밝혀, 역시 아동돌봄노동 시간은 가사노동과 여가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의 총량의 역사적 경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학력별 여가 시간의 불

평등, 즉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여가 시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여가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칫 저학력자의 저소득이 보다 많은 여가 시간으로 보상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American Heritage Time Use Survey를 사용한 Nadal and Sanz(2007)의 연구가 보여주듯,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여가 시간의 양은 적지만 질에 있어서 는 우수한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여가의 질을 여가의 에피소드의 수, 여가 시간을 배우자/성인과 보냈는지, 여가 아닌 다른 활동과 병행되었는지로 측정했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한 번의 여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배우자/성인과 여가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으며, 다른 활동과 병행되지 않는 순수한 여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의 양보다 질 을 선호하는 대체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노동과 여가 시간의 역사적 경향에 대한 논쟁은 시간배분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복지를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수준의 실질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에 투입해야 했다면 같은 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누린다고 말할 수 없고, 같은 수준의 실질소득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수면과 개인의 자유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투입하게 되었다면 순수한 여가 소비는 줄어든 것 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복지 수준을 단순히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계측하는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는 계측의 잣대를 조금 더 완전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KLI**

참고문헌

- Aguiar, Mark and Erik Hurst(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 _____(2008), “Comments on Valerie A. Ramey’s ‘How Much Has Leisure Really Increased since 1965?’” http://troi.cc.rochester.edu/~maguiar/timeuse_data/response_to_ramey.pdf,
- _____(2008), “The Increase in Leisur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13837,

- Becker, Gary(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pp.493~517.
- Guryan, Jonathan, Erik Hurst and Melissa Keamey(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pp.23~46.
- Hamermesh, Daniel S. and Jungmin Lee(2007),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2), pp.374~383.
- Juster, Thomas and Frank Stafford(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pp.471~522.
- Kimmel, Jean and Rachel Connelly(2007), “Mothers’ Time Choices in the United Stat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pp.643~681.
- Krueger, Alan B., Daniel Kahneman, David Schkade, Norbert Schwarz and Arthur A. Stone(2008), “National Time Accounting: The Currenty of Life,” <http://www.krueger.princeton.edu/nta2.pdf>,
- Nadal, José Ignacio Giménez and Almudena Sevilla Sanz(2007), “A Note on Leisure Inequality in the Us: 1965–2003,” University of Oxford Economics Series, Working Papers No.374,
- Phipps, S., P. Burton and L. Osberg(2001), “Time as a Source of Inequality within Marriage: Are Husbands More Satisfied with Time for Themselves Than Wives?” *Feminist Economics* 7(2), pp.1~21.
- Ramey, Valerie A.(2007), “How Much Has Leisure Really Increased since 1965?” http://econ.ucsd.edu/~vramey/research/How_Much_Leisure_Really_Increase.pdf,
- Ramey, Valerie A. and Neville Francis(2006), “A Century of Work and Leisure,” NBER, Working Papers No. W12264,
- Reid, Margaret G.(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Robinson, J. P. and G. Godbey(1997), *Time for Life :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